

이재명 “檢 모욕적·부당해도 대선패자로 오라니 또 간다”

檢 대장동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대선 패배 대가…국민 고통 비할 바 아냐”
 “검찰권 남용 사례…정치 중립 의무 어겨”
 “검사독재정권 탄생 과정…장기집권 꿈꾸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

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답을 정해두고)기소’ 아닌가.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합리적인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자체가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조사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시간을 끌어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의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같음한다고 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아무리 많아도 120~130페이지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자료를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사업의 정당성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 이익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 약 1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중에 4700억원을 환수했고 사업자에게 1800억원이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저희가 (민간에) 추가 부담을 1120억원 더 시켜 우리 몫이 5503억원이 됐고, 민간업체가 예정 수익은 1800억원 정도여서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며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를 못 했냐. 땅값 오를 것 왜 예상 못 했냐. 업자들과 이익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그러면 엘시티는 무슨 죄가 되나.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시늬는 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 통해 국민 억압하고 야당 말살하고, 장기 집권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출석 길에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데 오지 말아달라.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 새벽부터 전날부터 밤새고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고통받는 것 보기가 너무 안타깝다. 저와 변호사가 갈 테니 추운 날 고통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검찰 출석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조사처럼 주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수사라는 게 오늘날, 내일모레 안 하면 큰일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견해에는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약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이슬 기자

박홍근 “이재명, 마냥 檢 나갈 수 없어…다음이 마지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또 나간다고 했으니 한 번은 나가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쪽 의도는 이미 결론…황포 못하게 뜻 모아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마냥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다. 저쪽 의도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이 대표는 12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 소환 조사 요구가 있어 오늘(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인 소회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에 재차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무도한 횡포를 계속 일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제는 악화일로를

견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야당탓만하며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들어왔다”며 “본회의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고 상임위 열어 현안 대응하기는커녕 야당 대표 죽이기, 전 정부 지우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산적해 있던 민생경제 법안 중 일부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고 팍팍한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양국관리법을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국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계묘년 첫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30일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결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조례안은 행정자치위는 ‘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9건, 환경복지위는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는 ‘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편에 나오는 ‘유유낙명’의 해로 정해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